

고형원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14

일시 2026년 11월 7일 (토) 오후 1시

장소 테일러 로드 침례교회
Taylor Road Baptist Church · 1685 Taylor Rd, Montgomery, AL 36117

주최 에버그린 브릿지센터
Evergreen Bridge Center

[역사 속 이야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1839 – 1866)

Robert Jermain Thomas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와 아내 캐롤라인

1839년 영국 웨일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는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지만, 이듬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부르심을 놓지 않았다. 1865년 조선 서해안을 찾아 두 달 남짓 머물며 조선말을 익히고 성경을 나누었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조선의 백성을 향했다.

1866년 여름, 그는 통역관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 성경을 싣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했다. 통상을 요구하던 셔먼호와 조선 관군의 충돌 끝에 배는 불길에 휩싸였고, 강가로 나온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러 온 군사에게 마지막 성경을 내밀었다. 그의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벽지가 된 성경, 부흥의 불씨가 되다

From the walls of a house to the Great Revival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 (훗날 최치량의 여관)

그가 남긴 성경 가운데 일부를 소년 최치량이 주웠다가, 두려운 마음에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건넸다. 박영식은 그 종이로 자기 집 벽을 발랐고, 벽에 적힌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집은 훗날 최치량이 운영하는 여관이 되었다가 평양 최초의 개신교 예배 처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이다. 토마스를 칼로 벤 군사 박춘권도 훗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서 시작된 회개의 불길은 평양을 넘어 온 조선으로 번져 갔다. 대동강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등장인물



남식

장성웅



혜선

박서현



석철

박준성



연수

유채희



청주댁

조은수



철구

이진우



어른

이주희



민수
김시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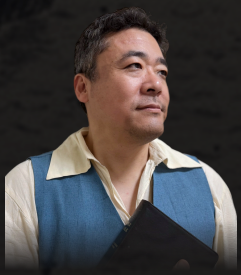
미선
임지아



용선
이지민



지수
박제아



토마스 선교사
양수석



박규수
안성빈



선교사
하정우



아인
하사무엘

포졸
우성빈, 이승주

줄거리 SYNOPSIS

1 프롤로그 1866년, 대동강

인트로 영상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무대는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내린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으로 이어진다. 선원들이 모두 쓰러진 강가에서 그는 평안감사 박규수 앞에 무릎 꿇린 채 성경을 내밀며, 이 책만은 꼭 읽어 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를 부르며 그는 끝내 칼에 쓰러지고, 그가 남긴 성경은 조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된다.

2 파송

선교사의 축복 속에 파송받은 석철과 연수 부부가 낯선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서양 귀신 들린 ‘요물’이라며 내쫓으려 하고, 마을 어른의 만류로 두 사람은 겨우 머물 곳을 얻는다.

3 장터

장터 한켠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마을의 골칫거리 남식과 패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교회를 부수고 석철을 때린다. “하늘 아버지”라는 말에 남식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4 남식이네 집

술에 취해 돌아온 남식은 아내 혜선에게 화풀이를 한다. 양반가의 딸이었던 혜선은 종의 아들 남식과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 남식은 점점 망가져 간다. 교회가 부서졌다는 소식에 혜선은 밤길을 나선다.

5 부서진 교회

홀로 교회를 치우며 두려움을 노래하던 연수에게 혜선이 찾아온다. 천주교를 따르다 죽은 언니 이야기를 털어놓는 혜선에게, 연수는 기도란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려 준다.

6 다시 교회

다시 세워진 교회에서 석철과 연수는 아픈 이들을 무료로 진료한다. 아이가 낫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 문을 두드리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다.

7 그날 밤

4년 전 그날 밤, 도망치던 남식과 혜선은 홍역으로 아기를 잃고, 혜선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끌려간다. 다시 남식 곁으로 돌아온 혜선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며 위로를 얻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다.

8 남식이와 청주댁

청주댁이 출신을 들먹이자 남식은 그녀의 가게를 부수며 날뛰고, 말리던 석철을 또다시 때린다. 지친 연수에게 석철은 "아무리 높은 벽도 물이 차오르면 결국 넘쳐흐를 것"이라고 말한다.

9 늦은밤

열에 들뜬 아이 아인을 발견한 남식은 죽은 자기 아이를 떠올리며 교회로 달려간다. 홍역이 번지자 석철은 치료제를 구하러 쉬지 않고 한양으로 떠나고, 마을은 기도하며 기다린다.

10 죽음의 권세

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은 남식은 분노에 사로잡혀 교회에 불을 지른다. 그 안에서 혜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석철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11 나는 여호와

자신이 저지른 일 앞에 무너진 남식을 장엄한 빛이 감싼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를 창조한 자니라." 평생 미워했던 그 이름 앞에서 남식은 무릎 꿇고 "아버지"를 부른다. 혜선은 무사히 구출된다.

12 교회 피날레

아인은 기적처럼 살아나고, 쌀가마니를 짊어진 남식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 화상을 입은 석철과 함께 온 마을이 예배하며, 부흥의 노래가 온 땅으로 퍼져 간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STAFF 스태프

기획 · 총괄	한복희
극본	헤브너스 백현주
연출	고슬기
연기 지도	이주희, 양수석, 하정우, 안성빈
안무	이초희, 김현지
합창	임아현
조명	백남일, 서요섭, 하이삭, 유채린
영상 · 자막	한승진
음향	김민성
미술감독	박은진
무대 제작	이대일
인트로 영상 · 프로그램	양수석
사진 · 촬영	이대일
백스테이지	김준철, 이효상, 노주희

고형원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연습 현장

REHEARSAL
















함께 땀 흘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들

고형원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에버그린 브릿지센터 · Evergreen Bridge Center

고성원선교사 잔양 묘지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